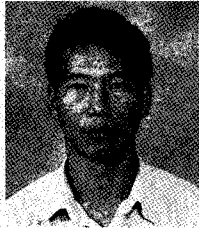


구학목장을 찾아서...



유우개량부 김 병 숙

구학목장은 아직 일반농가들에 많이 알려지지지는 않았지만 본회
검정을 받고 있는 농가중에서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하여 이제는
종축개량 시범목장으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지에 소개코저 한다.

목장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조부님의 권유로
79년 육성우 3두로 안양부근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도시화로 목장을 계속할 수 없어 88년에
화성군 양감면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18
년째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1남 1여)를 둔

전덕중(42)씨와 김선숙(42)씨, 이들 부부는
농촌에서 그래도 낙농업이 수익성이 있고 자금
회전이 원활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자녀를 교육
시키면서 목장을 알차게 꾸려 살아가는 모습이
농부로서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18년이란 세월
이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살아오

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중에서 어려웠던 것은 자금의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땅을 구입하든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두푼이 아니라 뭇돈이 있어

야 하는데 제대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정말 그 고충은 안당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S유업체에서 지원 받고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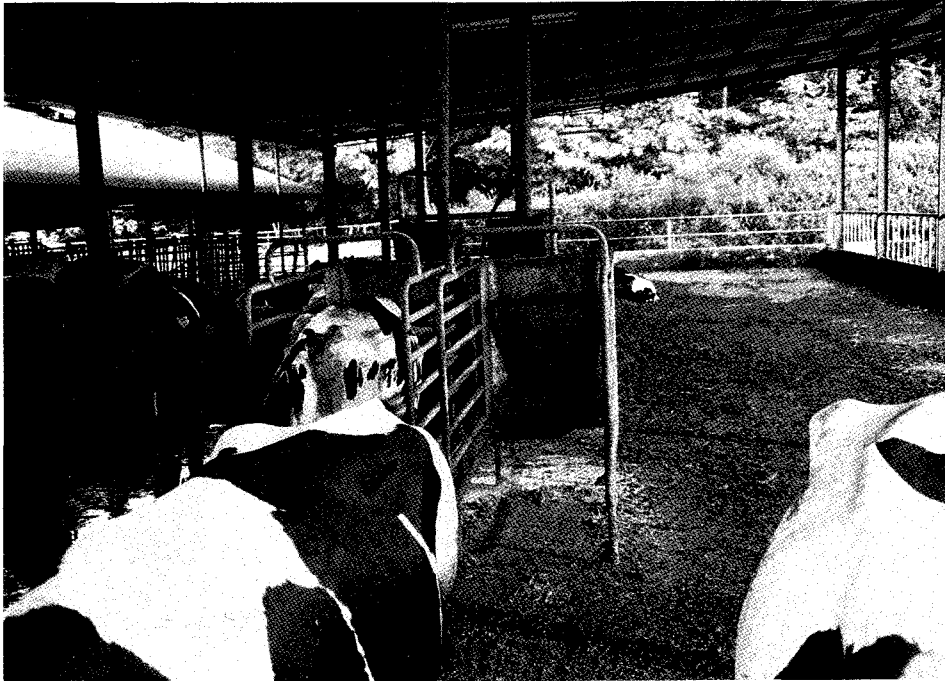
〈사진1〉 목장전경 (소들이 항상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운동장에 톱밥을 깔아 놓았다.)

18년동안 목장을 해 왔지만 불과 4년전에만 해도 개량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예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30여두 착유에 하루 산유량 650kg을 생산하여 두당 평균 22kg에 불과하였으나 우연한 기회에 개량한 농가를 방문하여 그목장 소들과 산유량을 보고 “나도 종축 개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제일 먼저 등록을 실시하게 된 것이 본회와 인연이 되어 계속적인 등록 및 선형심사를 통하여 계획교배를 실

시하였고, 수시로 본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시간이 허락치 않을때는 전화로 통화하면서 정보를 알고 선진농가를 방문하여 사양관리 기술과 여러가지 낙농정보를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배웠다. 예전의 벗짚과 농후사료 위주의 주먹구구식 사양관리에서 벗어나 18,000여평(12,000평 임대포함)의 사료포에서 옥수수를 수확하여 연중 사일레지를 급여하고 양질의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 체제로 많은 탈바꿈을 하였

다. '94년초부터 검정을 받기 시작하여 검정성적을 토대로 번식간격, 수정사항, 바디컨디션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우는 과감하게 도태를, 특히 초산에서 25kg 이하는 0.1kg가 떨어져도 미련없이 도태시킨다

고 전덕중씨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가끔씩 능력이 우수한 개량된 소들을 본회에서 실시하는 젖소 고능력우 평가 및 경매행사에서 몇두씩 구입하면서 열성적으로 목장의 변신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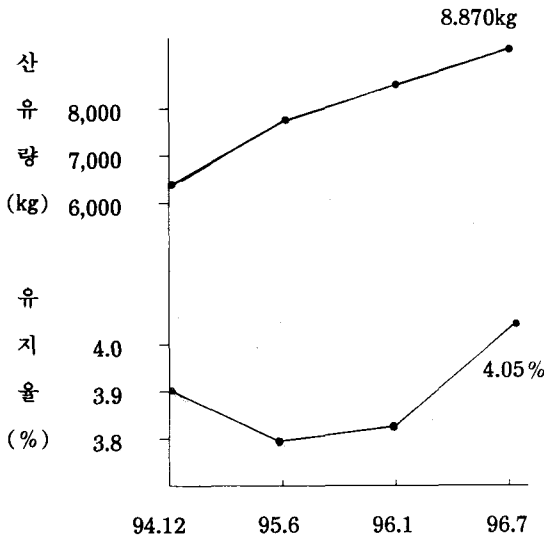
(사진2) 자유로이 농후사료를 먹고있는 자동사료급여기 모습

시설면에서 보면 기존의 계류식 우사와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고쳐 콘크리트 바닥에 톱밥을 깔아주고 작년에는 자동사료급여기와 2열 3두 텀덤착유실을 설치하여 사료의 급여에서 비효율적인 점을 없애고 산유량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한편 착유시간은 동시에 6두착유로 한시간 남짓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위생적인 원유의 생산과 착유환경이

되어서 좋다고 한다. 사양관리의 개선, 근친을 피하는 계획교배와 적절한 시설투자,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로 구학목장의 검정성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94. 12. 20일자 검정성적을 보면 21두 검정 305일성적이 불과 6,625kg에 유지율 3.9%였다. 그러던 것이 '95. 6. 23일 성적을 보면 25두 검정에 305일 성적이 7,753kg에 유지율이 3.82

%로 꺾어 올랐고, '96. 1. 11일 성적은 30두 검정에 305일 성적이 8,237kg에 유지율 3.84%로 지속적인 수직상승을 그리고 있으며 '96. 7. 24일 성적은 29두 검정에 305일 성적이 무려 8,870kg에 유지율 4.05%로 조만간 9,000kg에 진입하기는 시간문제라고 보인다.

〈표 1〉 검정을 받고서 우군의 산유량과 유지율의 변화추이



참고로 '9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6개월 검정성적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7월 5일 현재)

두 수	산 차	305일 추정성적			최근 성적	
		유 량 (kg)	유지량 (kg)	유지율 (%)	유 량 (kg)	유지율 (%)
34	2.1	8,685	346	3.98	28.6	4.09

산유량 분포별로 보면 10,000kg이상 6두, 9,000kg이상 8두, 8,000kg이상 9두, 7,000kg이상 6두, 6,000kg이상 5두로 분포되어 있다.

아직은 우사가 비좁은 관제로 우군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사 1개동을 추가로 지어서 사료의 손실도 없애고 소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목장에서 짠 우유가 우리 이웃과 자녀들 체력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덕중씨는 착유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 탓인지 18년째 남유를 하면서 아직까지 단한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체세포수와 세균수의 등급을 두었지만 구학목장은 모두 1등급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지금 세균수가 다소 불만이지만 10월이면 2t짜리 밀폐형으로 교체한다고 한다.

지난 6월 11일~12일 본회에서 주최하는 제8회 고능력젖소 평가 및 경매행사에서도 경산우 1두와 초임우 2두를 출품하여 초임우 2부에서 구학 벤자민 딜라이트 176호가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매에 있어서도 초임우 2두는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고가에 낙찰된 것은 그동안의 구학목장의 발전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자기목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웃의 목장들에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주의 의식전환 없이는 어렵다고 전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예전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덕중씨는 양감낙우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낙우회원에게 종축개량의욕을 고취시키고 본회 직원이 2~3차례에 걸쳐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등록 및 심사 1,000여두를 실시하겠끔 하였고, 양감면내의 낙농가들의 개량의욕이 다른 지역보다 후끈달아 오른 것은 아마도 구학목장의 변한 모습을 봄으로써 다른 낙농가들도 호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족노동력으로 상시착유두수 40여두로 1일 산유량 1,200~1,500kg(1두당 30~38kg)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여유가 된다면 사료포도 더 확보하여 두당 평균산유량을 35kg이상의 고능력우로 개량하여 정제화된 우군으로 바깥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밀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목장으로

로 만드는게 꿈이라고 한다.

구학목장의 또 한가지의 희망은 아직은 어리지만 2세가 되물림하는데 호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살아 갈 활력소로 보여진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덕중씨와 같이 열성적으로 목장을 경영한다면 요즘과 같이 낙농업계가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짙은 안개속을 무사히 헤쳐나가기라 확신한다. 끝으로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목장 방문하는 날이 옥수수 수확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맞아주고 시간을 내어 주신 구학목장 전덕중 시장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 소 :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사창 4리 산204
구학목장 전 덕 중
전 화 : 0339) 52-1346

■ 국가별 우유·유제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한 국	일 본	미 국	덴 마 크	뉴질랜드	캐 나 다
94년 47kg	93년 83kg	252kg	311kg	323kg	253kg